



깨끗한 작업환경 속에서 시작되는 안전관리 -풍림산업(주)검암3차아파트 신축현장-



▲ 박경수 소장

이느덧 여름은 하직 인사를 하려는지 아침, 저녁 제법 차가운 가을 기운이 느껴지는 9월이 왔다. 파란 하늘 제트기가 지나간 하얀 자국처럼 물러난 여름을 뒤로 하고 싱그러운 상록의 향내가 물씬 풍기는 인천광역시 검암동을 찾았다.

■ 깨끗한 현장은 사고도 없고 품질도 좋다.

풍림산업(주)검암3차아파트 신축현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검암2택지지구 내에 위치하여 341세대의 아파트와 부속동 4개동으로 이루어진 아이원아파트 신축현장이다.

주변에는 대규모 복합 업무 관광단지도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김포매립지가 이웃해 있고, 2005년 완공예정인 국내 최초의 운하인 경인운하는 경제적이대효과와 멋진 조망권 형성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한다.

검암3차아파트 신축현장의 박경수 소장은 「깨끗한 현장은 사고도 없고 품질도 좋다」하여 깨끗한 현장 만들기를 항상 강조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맑은 정신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 안전한 작



업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청결, 자재 정리정돈 등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화장실과 샤워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흙먼지 제거를 위해 현장바닥의 관리 등 세심한곳에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 원칙 중시하여 재래형 재해 근절시키고자

우리나라 건설 재해 중 70% 이상이 추락, 낙하·비래 등의 재래형 재해이고, 이 중 99%가량이 사전 예방 가능한 인재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불안정한 행동 제거에 중점을 두어 관리해야 한다.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대부분 시스템화 되어 있어 새로운 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풍림산업(주) 검암3차아파트 신축현장에서는 새로

운 안전관리 추구에도 노력하지만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이를 실천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재래형 재해를 방지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풍림산업(주)는 전 현장을 대상으로 'NEWSTART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운동은 각 현장마다 다르게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전표준화」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3·5운동과 3대 1무운동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3·5운동이란 안전체조·안전교육·복장점검의 3가지를 작업시작 전 5분씩 실시하여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안전의식을 바로 잡기 위한 운동이고, 3대 1무운동은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장치 및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자 하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현장근로자들이 직접 부딪치며 생활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업무를 같이 병행토록 하여 안전관련 정책의 조속한 시달과 반영을 도모하였다.

■ 안전교육도 첨단화

첨단화 시대에 발맞춰 검암3차아파트 신축현장은 안전교육을 함에 있어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등의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한다.

사례교육과 더불어 작업자 개인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근로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안전작업과 불안정 작업 및 위험점을 본인의 모습에 비추어 직접 느낄 수 있고 보다 생생하고 살아있는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된다. 그로 인한 근로자의식 자체의 변화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실시하는 정기교육 및 안전점검의 날 모범근로자 표창을 비롯하여 새로운 공정투입시 위험 공정에 대한 사전 위험요소와 근로자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실시하는 안전조회에서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 예로 마감공정은 주로 실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고소작업 및 낙하·비래로 인한 위험성이 낮

아 근로자들이 안전모 착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검암3차아파트 신축현장에서는 내부 작업자들의 신규교육시 실내에서 발생한 전도로 인한 중대재해사례 등을 들어 교육함으로써 건물내부에서의 안전모 및 턱끈 착용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 술선수범의 자세로 나먼저 안전지켜야

검암3차아파트 신축현장에는 현재 9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처리하며 매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그들과의 안전협조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곳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우 과장은 근로자들을 교육함에 있어 술선수범할 것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안전 체조나 안전모 착용시 안전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이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 근로자 앞에 나가고 그들을 이끌어갈 때 만이 말로만 하는 안전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가는 안전이 되어 진정한 무재해 사업장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관리자라 하여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위치라 생각하지 말고 근로자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동료로 여겨 상호 협조가 가능토록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인우 과장은 강조한다.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이 힘들고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자나 안전관리자 모두 자신의 소중함과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충실히 작업에 임할 때 안전의 고지가 멀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 현장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무재해를 위해 정진, 또 정진하기를 기원한다. 

〈성호연기자〉

